

# KBS America 사보

발간일 2016년 4월 7일

발행인 유건식 편집인 안정문

www.kbs-america.com T. 213-739-1111 F. 213-739-2729 info@kbs-america.com 625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5

## [ KBS America 창립 12주년 기념사 ]

친애하는 KBS America 임직원 여러분.  
창립 12주년을 축하합니다.  
4월 1일은 우리로 보면 생일에 해당하는 날로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기업이 창업하여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하는 기법인 카플란-마이어법을 활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은 창업 후 1년 이내에 5.9%, 4년 이내에는 51.6%가 폐업의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2014년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처럼 12년된 기업의 생존율은 32% 정도 됩니다. 10개 업체가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7개 정도는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KBS America가 12년을 맞았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KBS America는 2004년 창립한 이후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 것처럼 시장도 6번이나 바뀌었고 부서의 공간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근무한 분이 2명만 있는 것을 보면 인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브 프라임 기간 동안 3년간 상당액 적자가 발생하여 회사가 매우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적자도 완전히 해소하여 건전한 회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12주년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은 축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지난 12년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착기로 2004년부터 2007년입니다. 2004년 창립하여 회사를 세팅하면서 Dish Net과 타임워너 케이블 등을 포함한 채널 진출에 중점을 둔 시기입니다.

둘째는 성장기이자 고난기로 2008년부터 2011년입니다. 2008년 KBS LA를 통합하면서 광고사업이 본격화되어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창립한 첫 해인 2004년 310만불 었던 매출이 2008년 1,165만불과 2009년 1,346만불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 위기를 겪어 적자가 심하게 발생하여 고난을 겪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 목 차

KBS America 소식	
창립 12주년 기념사 및 기념식 행사	1 ~ 2
KBS World 24 남가주 지상파 런칭 반응	3
굿 닥터 포맷 계약 체결	
영화 배급-로봇소리, Baro TV 계약	4
재외선거 등록 캠페인 진행	5
Latino 채널 제작 시스템 개선	
비디오 업무 사무실 이전	6
통신비 지원 기준 개선	
2층 서버룸 전기공사 및 불용장비 이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7
보도팀 탐방 및 신입사원 인터뷰	8
건강보험 변경	
KBS America SNS 소개	9
KBS 콘텐츠	
신규드라마 소개 및 태양의 후예 열풍	10
온라인 콘텐츠 1/4분기 드라마 순위	11
취미와 건강	
음악추천	12
취미추천 & 깔깔깔	13
제휴사 소식	
광고주 탐방 -헬스코리아<천호식품>	14
사원동정	
건강	
직원할인 제휴업체 소개	15

셋째는 극복기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2011년 972만불로 매출이 바닥을 치고,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고난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기였습니다. 2012년에는 KXLA와 협상을 하여 송출료를 크게 절감하였고, 2013년 8월에는 DirecTV 프리미엄 채널에 진출하여 크게 순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4년에는 한인 방송사중 최초로 HD 시스템을 구축하고, KBS월드라티노도 런칭을 했습니다. TV 패드 소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소송에서 이겨서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창립 12주년을 맞는 2016년은 제2의 성장기로 기억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몇 년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추진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드라마 리메이크, 예능 포맷 비즈니스, 영화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KXLA 송출료 인하, 출장비 기준 개선, 휴대폰 요금제 개선, 스페인어 더빙 및 자막 작업 개선, 조직개편, 홈페이지 개편 등 경영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시켜 KBS America가 안정된 기업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잘 따라와 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S America가 2016년을 제2의 성장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미주 지역에서 한류와 한국문화를 확산시키는 허브(hub)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1월부터 LA지역에서 44.8채널로 방송을 시작한 KBS 월드 24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44.1 채널은 30분 방송시간을 확대하여 KBS의 영향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 재원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뉴스 포맷 변경, KBS America 뉴스 페이스북 운영, 기자 채용 등을 통한 뉴스 시스템을 혁신하여 KBS America가 LA 교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월 말에는 K-POP 콘테스트를 LA지역에서 하던 것을 뉴욕, 워싱턴까지 포함하여 미국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도 KCON과 연계하여 붐을 일으키기 위해 한국 미디어 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둘째, KBS월드라디오를 확장해야 합니다.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가시권 안에 들어 왔습니다. 현재 10여개국에 방송하고 있는 것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들에 진입을 연초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직뱅크 더빙을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여 퀄리티를 높여 방송하고, 'TV도라마'와 협력하여 더 많은 드라마를 스페인어로 더빙하여 KBS월드라디오에 방송함으로써 채널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셋째, 북미와 남미 오프라인 콘텐츠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KBS의 품격 높은 드라마에 대한 리메이크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던 예능 포맷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더빙을 하여 미국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방송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태양의 후예>가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인기는 중국 정부에서 통제할 정도이며, 미국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남미까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BBC에서도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내 중국계, 베트남계, 필리핀계, 남미계 등에 KBS의 드라마가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Plan Z 소비'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Plan Z 소비'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 2016』의 첫 번째 트렌드로 단지 무조건 아끼고 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쓰지만 만족은 크게 얻으려는 전략입니다. 모든 업무를 할 때 지향해야 할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캔턴은 『퓨처 스마트』에서 미래에는 소비자가 하나의 기업을 다른 기업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기업의 '사회적 목적'이고, 수익만 중시하는 기업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KBS America는 미주 사회에 KBS의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원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아암 돕기 기금 마련 골프대회나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5가지 전략을 추진한다면 2016년은 KBS America가 제2의 성장기로 진입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창립기념일은 더욱 풍성한 기념식을 준비하리라 기대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12주년 창립기념식 행사 ]



2016년 3월 31일 KBS America 창립 12주년 기념식 행사가 오전 11시부터 4층 로비에서 열렸다.

창립 12주년 기념식의 개최 선포와 함께 감사패 및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KBS America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자는 KBS America의 본사 담당자인 콘텐츠 사업국의 윤원주 차장이 선정되었다. 본사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있으며 특히 '빠꾸기동지' 스페인어 더빙 재제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 선정하였다.

이경주 차장을 콘텐츠 사업국 사업1팀 팀장에 보임하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앞으로 이경주 팀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 1팀을 이끌게 된다.

창립기념품 전달식이 이어졌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프트 카드를 기념품으로 준비하였고, 구입의 상당 부분은 회사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리워드(Reward)를 활용하였다. 이어서 사장님의 창립기념사는 '2016년은 KBS America가 제 2의 성장기로 진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준비된 식수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같이 점심식사 (캐더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 KBS 월드 24 남가주 지상파 런칭- '고국을 전한다' ]

2016년 1월 1일 0시. KBS America는 뉴스 전문채널 'KBS 월드 24'를 지상파 채널 KXLA 44.8을 통해 미국 남가주 지역에 런칭했다.

KBS World 24 채널은 KBS News9과 뉴스광장 등 주요 뉴스 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큐멘터리와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들도 종합 편성된 '한인 시청자를 위한 실시간 본격 시사전문채널'이다. 이처럼 남가주 일원 한인 시청자들에게 올해부터 고국이 한층 가까워졌다.

비버리 힐즈에 살면서 바둑 아마추어 초단인 구본석(45)씨는 요즘 밤잠을 설쳤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생중계 때문이다. 특히 5국때에는 미국 서부시간으로 새벽 2시나 되어서야 대국이 끝났다. 구씨에게는 즐겁기 그지 없는 피곤함이다. 이처럼 KBS World 24채널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실시간 방송'이라는 데에 있다. LA일원 지상파 한인 시청자들에게는 이제 채널 선택권이 생겼다. KBS 드라마나 예능은 KXLA 44.1번을 통해 보고, '인공지능과의 대결' 같은 실시간 중계방송은 KXLA 44.8번을 통해 선택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남가주 지역에서 지상파(KXLA 44.1)를 통해서만 TV를 시청해 왔던 한인들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저녁시간 때에만 KBS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지상파로도 KBS 프로그램의 24시간 시청이 가능해 졌다. KBS World 24가 런칭한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이다. 5년 전 LA로 이민온 김상형(51)씨는 그동안 없던 습관이 다시 생겼다. 저녁이 되어서 가끔씩 보던 TV를 아침부터 켜놓게 된 것이다. 서울 출장이 잦은 김씨는 "최근 서울에 갔을 때 미국에 사는 자신보다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에 놀랐다"고 한다. 올해는 특히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유독 정치에 관심이 많은 김씨는 요즘 KBS World 24를 통해 '20대 총선 정당 정책 연설'을 시청 중이다.

미국에서 지상파 채널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공영방송 KBS의 동포사회에서의 정체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KBS아메리카 유건식 사장은 "공영방송 KBS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남가주 지역에 24시간 뉴스 전문채널을 론칭했다"며, 이를 통해 "한인사회와 고국이 더욱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S America는 KBS World 24 채널이 보유한 장점들에 주목해, 제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개표 전과정 생중계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KBS World 24채널이 갖고 있는 공영성이 그 빛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굿닥터 포맷 계약 체결 (3AD) ]



KBS America는 필름/TV 프로덕션 회사인 3AD와 리메이크 옵션 재계약을 맺고 북미지역에서 굿닥터의 리메이크를 재추진한다. 지난 해 2월 CBS 스튜디오에서 파일럿 대본까지 나왔으나 아쉽게도 파일럿 제작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굿닥터는 자폐 성향과 사회 성숙도가 9살 수준에 못 미치는 주인공이 서번트 증후군을 딛고 소아과 의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기존 메디컬 드라마와는 다른 감동을 주었다. 탄탄한 스토리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힐링 드라마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 내는 주제 의식까지 녹여 내 미국에서의 리메이크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 영화 배급 - 로봇소리 ]

KBS America 영화 사업의 두번째 작품으로 '로봇소리'를 선정하고 Lotte Entertainment와 북미지역 영화 배급계약을 체결했다. 로봇소리는 2월5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동안 LA CGV 등에서 상영되었다.

Lotte Entertainment는 '해적', '더 테러 라이브', '최종병기 활' 등을 제작한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투자, 배급사이다.

### 영화 '로봇소리' (Sori : Voice From the Heart)

2003년 대구, 해관(이성민)의 하나뿐인 딸 유주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아무런 증거도 단서도 없이 사라진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해관은 10년 동안 전국을 찾아 헤맨다. 모두가 이제 그만 포기하라며 해관을 말리던 그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로봇 '소리'를 만난다.



## [ BARO TV 계약 ]

KBS America는 미주지역 IPTV 사업자인 Baro TV Inc. (대표: 조찬호)와 방송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2월1일부터 셋탑방식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KBS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는 Baro TV는 IPTV는 물론 PC와 모바일 확장을 통한 글로벌 방송 그리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해 대형 회사들이 들어올 수 없는 특화된 서비스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Baro TV는 특히 지난해 9월, 미 법원에서 TVpad의 불법판결에 따라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TVpad 셋톱박스를 가져올 경우 Baro TV 셋톱박스로 교환해주는 보상제도와 함께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Baro TV는 미주 한인사회에 빠른 한국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부터 뉴스 전용 방송인 KBS World 24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미주지역에 전달하고 있다.

Baro TV는 KBS World 24가 선별된 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로 편성되는 고품격 뉴스 채널로 빠르고 정확한 한국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에서도 Baro TV의 향상된 기술력으로 고품질의 KBS World 24채널을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Baro TV는 지속적인 콘텐츠 시장 발굴에 전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미주시장에 퍼져 있는 불법시장의 확산을 막고 콘텐츠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제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등록 캠페인 전개 ]



윤재수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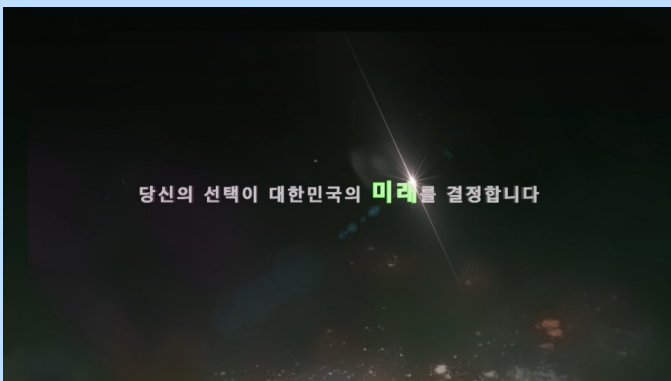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제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감 집계한 결과,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124,424명) 대비 미주지역 재외선거인 수가 27.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7,6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9,376명, 그리고 중국이 21,637명의 순이었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9,884명, 상하이총영사관이 7,604명, 그리고 LA 총영사관이 7,349명으로 세계에서 3위를 차지했다.

### < 주요 3개국 신고 신청 접수 현황 >

< 출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

국가별	공관수	예상 선거인수	신고·신청 합계 (신고·신청률)	영구정부 등재자수	신규 신고·신청자수		제19대 국선현황 (신고·신청률)
					재외선거인 (신청률)	국외부재자 (신고율)	
미 국	13	659,292	37,691 (5.72)	10,343	4,656 (1.36)	22,692 (7.14)	23,027 (2.66)
일 본	10	400,361	29,376 (7.34)	18,788	3,199 (0.94)	7,389 (12.18)	18,575 (4.02)
중 국	10	295,479	21,637 (7.32)	215	96 (2.15)	21,326 (7.33)	23,915 (8.10)

KBS America는 2016년을 맞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재외국민선거 등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재외선거 등록신청이 마감되는 2월 13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처럼 “당신의 소중한 한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호소했다. 재외선거 캠페인 홍보 영상을 직접 제작해 재외국민 투표 참여가 동포사회의 존재감을 고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임을 설명하고, 선거등록 방법과 절차, 등록 현황등을 뉴스를 통해 상세히 알려 한인들의 적극적인 선거인 등록을 독려했다.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정말 이걸 귀중한 한 표다.



이번 캠페인에는 재외동포재단이 함께 했고, KBS America의 6개 제휴사들 역시 미국 각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뜻을 하나로 모았다. 특히 LA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들은 KBS America가 올해들어 지상파(KXLA 44.8)에 런칭한 KBS의 뉴스 전문 채널 KBS World 24 채널을 통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이번 재외국민선거의 투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기간 중 전 세계 169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와 29개 추가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역시 남은 과제는 재외선거인들의 실제 투표율의 증가다. 지난 4월 6일 마감된 재외국민선거 투표율 집계 결과,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할 때, 선거인 등록과 투표자수는 크게 올랐지만, 투표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할 때 20대 총선 미주지역 선거인수는 34,749명에서 52,234명으로, 투표자 수는 17,053명에서 20,395명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선거인의 실제 투표율은 오히려 감소해 20대 총선 대비 49.1%에서 39.0%로 10.1%가 하락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선거인 등록 캠페인을 재외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으로까지 확대 전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 KBS World Latino 채널 제작 시스템 개선 ]



2014년 11월 1일 아시아 최초, 유일의 100% 스페인어 채널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런칭한 KBS World Latino 채널이 콘텐츠 제작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그동안 한류확산은 물론 KBS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확대에 이바지한 KBS World Latino 채널은 어려움 속에서도 In House 제작시스템을 통해 스페인어 자막과 더빙에 대한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브라질 포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력을 쌓아왔다.

그러나, 좀 더 전문화되고 타겟화 된 남미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6년 5월 초부터 전문 외주업체 제작을 통한 스페인어 번역과 더빙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 또외주 제작으로 인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남미지역에 대한 콘텐츠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KBS World의 새로운 채널 KBS World Latino는 중남미 6억 인구와 미국의 5천만 라틴계를 대상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중남미 10개국의 지역 케이블 채널과 유튜브, 애플 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KBS World Latino 채널은 모든 프로그램이 스페인어 더빙 또는 자막 처리로 방송되는 100% 라틴계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다. 또한 중남미 시청자가 좋아하는 KBS 드라마와 연예오락, 음악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24시간 방송되는 아시아 유일의 수준 높은 스페인어 방송이다.

KBS America는 KBS가 추구하는 공적의무와 함께 다채널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채널의 고품격화와 현지화 마케팅을 통한 해외 방송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 비디오 업무 사무실 이전 ]



< 비디오 업무 사무실 사무공간 조성 (전) >



< 비디오 업무 사무실 사무공간 조성 (후) >

당사 2층에 소재한 비디오업무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 하였다.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직원수 대비 넓은 공간을 사용하던 비디오업무 사무실(1,084sq)을 3층의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448sq)로 이전하고, 기존 사무실은 외부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는 3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무실 리모델링, 비디오 서버 및 장비 이전을 마무리하였다.

현재 2층 사무실에는 커피 전문 교육기관에서 입주한 상태이다.

### [ 통신비 지원 기준 개선 ]

2016년 1월부터 법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변경된 지원 기준은

- 첫째, Full Time 직원 중 일정 직위 이상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Part Time을 포함한 전직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둘째, 일반 개인이 주로 가입하는 Family Plan에 가입되어 있던 것을 Business Plan으로 변경하여 통신비를 절감하였다.
- 셋째, 데이터는 1인당 1GB를 기준으로 담당업무의 특성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개인별로 기준을 마련,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절감되는 재원으로 휴대전화 통신비 지원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1월에 새롭게 도입된 그룹웨어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 라티노/24채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KBS World Latino 채널은 모든 프로그램이 스페인어 더빙 또는 자막 처리되는 100% 라틴계 시청자를 위한 방송으로 24시간 방송되는 수준 높은 아시아 유일의 스페인어 방송이다.

중남미 10개국 지역에 케이블을 통해 방송되는 KBS World Latino 채널은 유튜브, 애플TV, KORTV 등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위성으로 송출되는 KBS World Latino 채널은 송출실내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온라인 스트리밍을 이용한 KORTV나 Youtube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진과 같이 콘솔 데스크 우측 상단에 접이식 거치대를 설치하여 6분할 멀티뷰를 통해 KORTV, YOUTUBE 및 KBS World 24 등 3개 채널의 동시 감시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다.



### [ 2층 서버룸 전기공사 및 불용장비 이전 ]

2층 서버룸은 기존 창고로 사용해 오던 사무실을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시스템 도입과 분산되어 관리해 오던 사내용 서버를 이전하여 서버룸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버룸으로 사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공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수의 서버 장비에 필요한 용량과 장비의 기계열을 식혀주는 에어컨의 전기 사용량을 감안해 전기 공급 용량을 확대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오랜기간 방치되어 먼지를 일으키는 불용 장비를 이전, 폐기 처리하였다.

또한 정리 후에는 서버의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먼지 청소를 마무리하여 개선된 서버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 2층 서버룸 공사 (후) >

## [ KBS America 보도팀 탐방 ]

2016년 KBS America 보도팀은 그 어느해보다 많은 변화를 맞았다. 우선 편성제작국내에서 단일적인 보도팀으로 거듭났고, 뉴스 프로그램의 대내외적인 변화도 꾀했다. 한인사회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취재기자도 충원했다.

현재 KBS America 뉴스는 한인사회의 크고 작은 많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News@K-Town' 코너를 신설, 간결하고도 임팩트 있는 보도를 선보이고 있다. 뉴욕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청자 관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별도의 'News@K-Town'를 제작, 방송하고 있다. SNS를 적극 활용하는 변화도 꾀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시청자와의 교감을 확대했으며, 웹사이트 상에도 기사별 업로딩을 실시, 시청자의 기사 선택권을 높였다.

KBS America 보도팀은 앞으로도 한인 이민사회와 미 주류사회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S America 뉴스는 미 서부시간 오후 8시 주 5일간에 걸쳐 20분 분량으로 자체 제작되어 전국에 방송되고 있다.



1. 우선 KBS America에 입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자 특성상 외근이 잦아 다른 부서 직원들이랑 인사도 많이 못 나누셨을 거 같은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삼일절 날 당찬 포부를 갖고 입사한 신입기자!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2. 지금 맡고 계신 직무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 보도팀 막내 기자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소식까지 따끈따끈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 [ 신입사원 인터뷰 김지은 ]

3. KBS America의 좋은 점과 입사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반대로 불편한 점이나 나쁜 점은?

<좋은점>

- 회사 시스템이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직원으로서 소속감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쁜점>

- 아직 한달밖에 안됐는걸요.. 불편한점이 생기면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4. 회사에 바라는 것은 뭔가요?

- 부서 간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부서 자랑 좀 해주세요~

정확성과 스피드가 생명인 일의 특성상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부서는 완벽한 팀웍과 일당백 능력을 갖춘 '어벤져스팀'입니다.

6.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KBS 아메리카 소속 기자로서 안팎으로 인정받는, '일 열심히 잘 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KBS 뉴스 김지은이었습니다'



## [ 건강보험 변경-Nippon Life PPO ]

회사 건강보험을 3월 1일자로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에서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로 변경하였다. 이전 사용해 온 HMO는 본인이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를 정해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주치의가 병력을 관리해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분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Referral을 통해야만 전문의에게 갈 수 있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즉, 주치의의 Referral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승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작은 병을 크게 키우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에 PPO (Insurance: Nippon Life)로 변경하면서 Referral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PPO는 HMO에 비해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었으나, 여러 보험 AGENT와 협상을 통해 직원 100명 이상의 회사만 가입할 수 있는 Large Group PPO Plan (Agent: Calkor)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추가로 하지 않으면서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KBS America SNS 소개 ]



**KBS America News**  
3월 29일 오후 1:23

최근들어 미국내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방 수사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대상 역시 회사와 개인, 단체를 모두 겨냥하고 있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사기, '마구잡이 피해' 3.28.16**  
KBS America News  
KBS America News, KA News, KA News, KBS America 8, KBS America, KBS America 8 News  
YOUTUBE.COM

KBS America는 SNS로 시청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KBS America News의 Facebook과 Youtube 계정을 오픈하여 뉴스를 건별로 Youtube에 업로드하고 Facebook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KBS America 관련 SNS는 다음과 같다.

### KBS World SNS

<https://www.facebook.com/KBSAmericaInc>  
<https://twitter.com/KBSAmericaInc>

### KBS America News SNS

<https://www.facebook.com/KBSAmericaNews>  
[https://www.youtube.com/channel/Ct1mwJaG\\_PBiH7CjrO5pxqw](https://www.youtube.com/channel/Ct1mwJaG_PBiH7CjrO5pxqw)

### KBS World Latino SNS

<https://www.facebook.com/KBSWorldLatino>  
<https://twitter.com/kbsworldlatino>

### KBS America Movie SNS

<https://www.facebook.com/KBSAmericaMovie>



[ 신규 드라마 소개 ]

마스터 — 국수의 신



드라마 '마스터-국수의 신'은 무명(천정명 분)과 김길도(조재현 분)를 중심으로 약 30년 전부터 시작된 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 갈등을 그리며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악연과 뒤틀린 욕망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가 가진 사연들을 적재적소에 담아낼 예정이다.

'야왕', '대물', '쩐의 전쟁' 등의 성공신화를 이룬 박인권 화백이 중앙일보에 연재하였던 만화 '국수의 신'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다. 탄탄한 스토리에 국수라는 신선한 소재가 욕망과 복수에 어떠한 매개체로 활용될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태양의 후예' 후속으로 방송되는 KBS2 새 수목드라마 '마스터-국수의 신'은 오는 4월20일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잘나가는 검사 조들호가 경찰의 비리를 고발해 나락으로 떨어진 후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웹툰이 원작이다.

주연 박신양이 벌이는 이 판은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던 구경꾼들을 꺾는 재주가 있다.

박신양 연기는 명성대로다. 그가 연기를 가르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먼저 TV 복귀식을 치른 터라 '배우학교' 교장의 실전 연기를 꼼꼼하게 뜯어보는 재미도 크다.

3월28일 첫방송을 시작해 착한 드라마로 자리매김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 “태양의 후예” 열풍 on viki ]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비키는 '태양의 후예'를 4주간 미주 지역에서 독점 서비스한 결과, 전세계 최신작 50여 편 중 조회수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 4천만 명이 이용하는 비키는 전 세계 20개국 수백편의 드라마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뜨거운 시청 반응 속 현재 비키가 서비스하는 각국 최신작 50여 편 중 2위와 상당한 차이로 조회수 1위를 달리고 있다.

스트리밍 사이트 '비키'서 유료 서비스 무료 콘텐츠 제치고 1위

특히 '태양의 후예'는 비키가 처음으로 시도한 유료 전용 서비스 콘텐츠로서 성공을 거뒀다는 데 의미가 크다.

비키는 현재 월정액 3.99달러(약 4천630원)를 내고 광고 없이 이용하는 유료 이용자와 광고를 봐야 하는 무료 이용자로 나뉘는데, 이번 '태양의 후예'는 회당 처음 2주씩 유료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했다.

비키 측은 "유료로만 서비스하는 첫 사례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는데 다른 무료 콘텐츠들을 압도하는 반응"이라며 "회사 방침상 정확한 이용자 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처음으로 시도한 유료 전용 서비스임에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체 무료로 전환되면 더욱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2016년 1/4분기 온라인 콘텐츠 드라마 순위 ]



## Viki Top 10 Korean Dramas

1. Oh My Venus (오 마이 비너스-KBS)
2. Moorim School (무림학교-KBS)
3. One More Happy Ending (한번 더 해피엔딩-채널A)
4. Madame Antoine (마담 앙트완-JTBC)
5. Remember (리멤버:아들의 전쟁-SBS)
6. I Have a Love (애인있어요-SBS)
7. She Was Pretty (그녀는 예뻤다-MBC)
8. Boys Over Flowers (꽃보다 남자-KBS)
9. All About My Mom (부탁해요, 엄마-KBS)
10. Descendants of the Sun (태양의 후예-KBS)

## Dramafever Top 10 KBS Dramas

1. Oh My Venus (오 마이 비너스)
2. Moorim School (무림학교)
3. Love & Secret (달콤한 비밀)
4. Who Are You: School 2015 (후아유: 학교 2015)
5. Noble, My Love (고결한 그대)
6. Hi! School: Love On (하이스쿨: 러브온)
7. Blood (블러드)
8. Healer (힐러)
9. Sassy Go Go (발칙하게 고고)
10. Dream High (드림하이)

## Viki Top 10 KBS Dramas (Americas-미국)

1. Oh My Venus (오 마이 비너스)
2. Moorim School (무림학교)
3. Descendants of the Sun (태양의 후예)
4. All About My Mom (부탁해요, 엄마)
5. Who Are You: School 2015 (후아유: 학교 2015)
6. Healer (힐러)
7. Hi! School: Love On (하이스쿨: 러브온)
8. The Innocent Man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9. Five Children (아이가 다섯)
10. Love Rain (사랑비)

## Viki Top 10 KBS Dramas (All Regions-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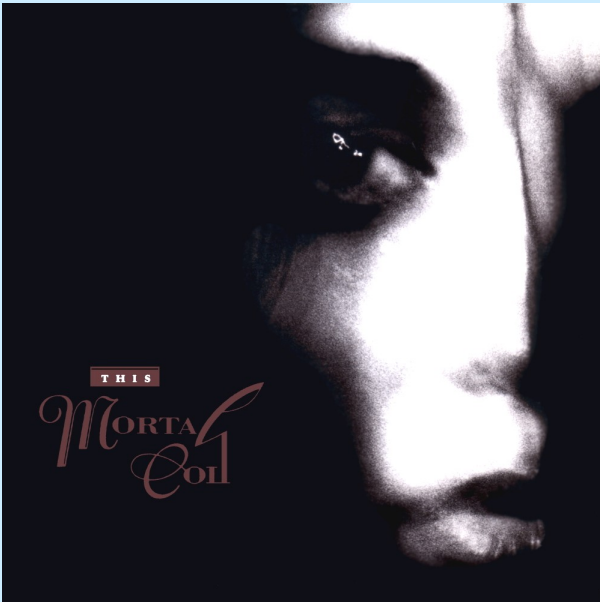


1. Oh My Venus (오 마이 비너스)
2. Moorim School (무림학교)
3. All About My Mom (부탁해요, 엄마)
4. Descendants of the Sun (태양의 후예)
5. Healer (힐러)
6. Who Are You: School 2015 (후아유: 학교 2015)
7. The Innocent Man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8. Sassy Go Go (발칙하게 고고)
9. Hi! School: Love On (하이스쿨: 러브온)
10. Blood (블러드)

## [음악추천]

## This Mortal Coil

1984년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TV에서 미군방송 AFKN을 시청하던 중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접하고선 너무나 좋아서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검은 바탕의 배경에 여자 가수 한명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대부분인 미니멀리즘적인 뮤직비디오였고, 음악 역시 가벼운 기타반주에 여자 가수의 목소리가 전부인 노래였지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음악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를 매료시켰다.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찾아볼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This Mortal Coil이라는 가수 이름과 "Song To The Siren"이라는 노래 제목만 알아적어놓고 다시 들을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이듬해인 1985년에 이들의 첫 앨범 It'll End In Tears가 한국에서 라이선스 음반으로 발매되어 곧바로 구입해서 열심히 들었다.



This Mortal Coil은 It'll End In Tears 이후 Filigree & Shadow (1986), Blood (1991) 등 2장의 앨범을 더 내놓았다. 1장의 LP로 나왔던 It'll End In Tears와는 달리 2장의 LP로 구성된 더블앨범으로 나와서 각각 25곡, 21곡이 수록된 Filigree & Shadow와 Blood는 더 길어진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들이 This Mortal Coil의 사운드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Blood 이후 Ivo Watts-Russell은 This Mortal Coil 프로젝트를 종결했고, 1993년에는 This Mortal Coil의 앨범 3장과 이들이 재해석한 곡들의 원곡 21개를 모은 보너스 디스크 1장을 추가해서 4장의 CD로 구성된 박스 세트가 발매되었다. 보너스 디스크는 This Mortal Coil에게 영감을 줬던 원곡들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나에게게는 앞에서 언급한 Tim Buckley 외에도 1970년대 미국의 파워팝 밴드 Big Star, Big Star의 멤버였던 Chris Bell과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Song To The Siren" <https://youtu.be/HFWKJ2FUjAQ>

"Kangaroo" <https://youtu.be/WByGMjdeJD4>

"Late Night" <https://youtu.be/9S5xonZ0z9M>



포스트펑크 장르의 음악을 주로 발매하는 영국의 4AD 레코드사에 소속된 This Mortal Coil은 실제 밴드가 아니라 4AD의 공동창업자이자 소유주였던 Ivo Watts-Russell이 기획한 프로젝트 그룹이다. 4AD 소속의 Cocteau Twins, Dead Can Dance, Modern English와 같은 밴드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his Mortal Coil은 노래의 특성에 맞춰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음악을 담당했고, 창작곡 보다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나왔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노래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시 알린 것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나를 매료시켰던 "Song To The Siren" 역시 본래 1970년대 미국의 포크 음악 가수 Tim Buckley의 원곡이었던 것을 Cocteau Twins의 멤버들인 보컬리스트 Elizabeth Fraser와 기타리스트 Robin Guthrie가 재해석한 곡이며, It'll End In Tears 앨범의 12개 수록곡 중에서 절반인 6곡이 이같은 리메이크곡이다.



By 김상국 팀장 (경영기획실)

## [ 취미추천 — 극단활동 ]

안녕하세요? 저는 편성제작국 송출팀의 박갈렘 과장입니다.  
이번 사보 취미추천 코너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극단 "P@N (판)"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P@N (판)"의 일원이 된지 3년째이고 배우는 물론 음향, 작곡 및 편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P@N (판) 은 Play at Noreeter 의 줄임말로 LA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좀 더 제공하고자 모이게 된 EVENTIC Performing Project Group (이벤트성 공연 프로젝트 그룹) 입니다.

주제, 관객, 시간의 제한없이 공연을 하자는 취지로 2010년 배우들을 중심으로 모여 시작한 P@N 은 연극 뿐 아니라 MUSICAL, 음악 토크쇼, FILMING PERFORMANCE, 독백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 공연을 이벤트와 함께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서울 혜화동 대학로와 같이, 미국 엘에이를 중심으로한 공연의 대명사가 되기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P@N 의 모든 멤버들은 이 모든 것에 열정을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8~9월 수요공연으로 올려졌던 뮤지컬 콘서트 "Can You Feel the Music Tonight?" (위쪽 사진) 에서는 조연출로 작품에 참여하였고 2015년 2월에 올린 연극 "안채호의 세 딸들" (왼쪽 사진)에서는 안애리의 전 애인에게 돈을 빌려준 남자 이고창 역을 맡아 걸으며 봐서는 터프하지만 사실 한번 여자에게 반하면 속절없이 다 내주는 순정파를 연기하였습니다.

단순한 친목도모회가 아닌 작품을 함께 만들어 전문공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진해 나가는 공연 그룹의 일원으로써 같은 생각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확정된 공연은 뮤지컬 "너를 위한 I Do"를 8월에 올릴 예정입니다. 8월 공연에서 저는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뮤지컬의 전 곡을 작곡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연일정이 나오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By 박갈렘 과장 (편성제작국 송출팀)



## [ 깔깔깔 ]

어떤 아버님이 밤에 술 취해서 들어오셔서 발씻으려고 세면대에 왼쪽 발을 올려놨음 . 근데 오른쪽 발을 보더니 "아이고 이쪽 발이나와있네" 하면서 오른쪽 발 올리다 병원에 실려감.ㅋㅋㅋ

안방에서 뽕때리는소리가 나길래 부부싸움 하나 싶어서 뛰어갔는데 아빠 스킨바르고 계셨음 ㅋㅋㅋ아빠 ㅠㅠ

어떤 사람이 면접보러가서 면접관이 "아버지는 뭐하세요?"이러니까 그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ㅋㅋ

방에서 나올때 불끄는게 습관인 사람이 면접보러 갔다가 면접보고 나오면서 불끄고 나왔다고 ㅋㅋㅋ

빚스에서 "저가요" "네! 손님?" "저 부가세 안먹었는데요——" ㅋㅋㅋ

내 친구 아파트에서 어떤 애들이 베란다에서 폭죽 터트리고 있으니깐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하는 말~  
"어떤 새끼가 축복을 터뜨려!!!!!!!!!!!!!!"ㅋㅋㅋ

영화관에서 친구랑 영화보다가 배아파서 잠깐 화장실갔다 자리로 돌아와서 친구 귀에다 대고 "나 똥 2키로 싸땀" 그랬더니 알고보니 친구가 아니고 어떤아저씨 ㅋㅋ 아저씨말 "수고하셔요"

어떤 여자분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어느 날 1박2일 봤는데 상근이가 너무 귀여워서 싸이 메인에 [ 상근이 너무 귀여워 ><♥ ] 이래 써놓으니깐 전남친이 술취해서 전화해서 [... 상근이란 놈은.. 잘해주냐?...] 이런거 ㅋㅋㅋ 슬프다...ㅋㅋㅋ

## [ 제휴사 소식 ]

### 하와이 KBFD, 개국 30주년, 제휴사 10주년



하와이 KBFD 방송이 올해 개국 30주년을 맞았다. KBFD는 지난 1986년 한인소유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하와이에서 TV 방송 신호를 송출했다. 당시의 송출 호출 부호가 KBFD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06년 KBS America와 제휴사 관계를 맺고 KBS World 프로그램을 하와이 지역에 방송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되는 해이다. KBS World 방송은 현재 하와이에서 타임워너 오시아닉 케이블 디지털 채널 80번과 하와이언 텔레콤 채널 23번을 통해 24시간 방송되고 있다. 2016년 이처럼 뜻깊은 한해를 보내고 있는 KBFD 방송은 아시안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하와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류열풍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샌프란시스코 KEMS, 사옥 이전



샌프란시스코 KEMS 방송이 KBS America의 제휴사가 된 것은 2014년 12월. 제휴사로서는 새내기이다. 북가주 지역 대표 한국어 방송인 KEMS는 현재 DTV 지상파 채널 36.2과 컴케스트 케이블 베이직 채널 197번을 통해 KBS 월드 방송을 24시간 방송 중이다. KEMS 방송은 지난 2월 산타 클라라 지역으로 사옥이전을 하면서 KBS 월드와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실리콘 밸리 및 한인 커뮤니티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 사옥을 이전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세계적인 IT 산업 지역이자 교육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류 확산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KEMS 신사옥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2998 Scott Blvd. Santa Clara, CA 95054, 대표 전화 (408)588-0001

## [ 광고주탐방 — 헬스코리아 <천호식품> ]

금번 광고주 탐방은 "한인커뮤니티의 건강지킴이"로서 10년간 성장해온 '헬스코리아'를 탐방하였다. 미주 지역에 6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중이며, 이번 방문한 매장은 코리아타운플라자 2층에 소재한 3호점이다. 들어서자마자 탁자에 블루베리쥬스와 홍삼쥬스를 준비해 주셔서, 시음한 후 건강한 기분으로 Eunice 매니저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Q: 헬스코리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LA의 한인타운 중심에 문을 열게 된 '헬스코리아'는 한국 최고의 건강제품 및 기구를 미주 동포사회에 소개하며 웰빙문화를 전파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6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오픈하여 고객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한인시장을 넘어서 중국인 고객을 위해 2015년도에 다이아몬드바에 5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 Q: 헬스코리아와 천호식품은 어떤 관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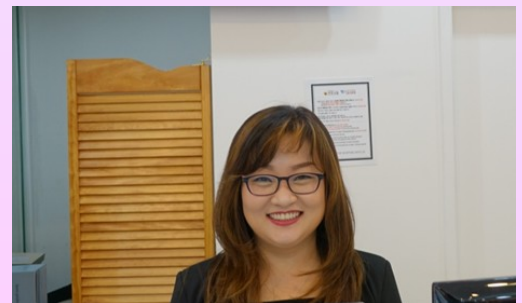
2012년에는 한국의 천호식품과 MOU체결을 맺으며, 미주 천호식품 총판(Distributor for US Sale)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는 이 매장은 헬스코리아 3호점인 동시에 미주 천호식품 단독매장이기도 합니다.

### Q: 선물용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매장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시는 분의 연령대와 어떠한 기능식품을 원하시는 지 다르겠지만,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제품이 '녹용홍삼'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재구매율도 높고, 남녀노소 및 전 연령대에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원기를 회복하는데 최고의 보약입니다. 건강식품 외에도 마사지체어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기구도 있습니다.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Q: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

온라인 매장을 통해 미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헬스코리아와 천호식품의 제품을 찾고 계십니다. 미 전역으로 무료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이 LA와 인근에만 위치해 있어, 향후 타주에도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인시장을 넘어서 미국 주류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헬스코리아(천호식품) Eunice 매니저 >

### Q: KBS America에 해주고 싶은 말씀.

KBS는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매체입니다.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뿐 아니라 타민족 커뮤니티와도 더욱 도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광고주들도 우수한 제품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상호 윈-윈(Win-Win)하며 한인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닐까요.

## [ 사원동정 ]

### 팀장 보직 임명

콘텐츠사업국 콘텐츠사업1팀장 - 이경주

### 출산

윤중호 - 편성제작국 송출팀 첫 아들 윤라온 배우자 출산 (3/3/2016)

### 부고

성민재 - 편성제작국 송출팀 외조부 별세 (3/4/2016)

### 입사

김지은 - 편성제작국 보도팀 (3/1/2016)

박진아 - 편성제작국 송출팀 (3/20/2016)

진우리 - 편성제작국 송출팀 (3/29/2016)

### 퇴사

박은비 - 편성제작국 송출팀 (3/23/2016)

Rachel Lee - 콘텐츠사업국 콘텐츠2팀 (3/25/2016)

김보라미 - 콘텐츠사업국 콘텐츠2팀 (3/28/2016)

Chin Yi - 콘텐츠사업국 콘텐츠2팀 (3/31/2016)

탁소정 - 콘텐츠사업국 콘텐츠2팀 (3/31/2016)

## [ 건강 ]

###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살을 뺄 수 있는 7가지 습관]

####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마시기

식사 전 물을 마시면 공복감을 줄여 과식을 막을 수 있다. 가수 노유민(36)씨는 자신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공복에 따뜻한 물 1리터를 마신다" 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물이 싫다면 사과나 오이 등 열량이 낮은 과일, 채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 2. 주변에 화분을 두고 싱그러운 냄새 맡기

싱그러운 풀과 흙냄새를 맡으면 몸에 좋은 식단을 먹고 싶어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부 과학자들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깨끗한 화분 냄새를 맡으면 일시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고 주장한다.

#### 3. 점심은 신선하고 건강한 메뉴로

바쁠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나 피자는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낮은 '나쁜 음식'이다. 일정이 빡빡할수록 소화가 잘되고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샐러드가 낫다. 좀 더 든든한 점심을 원한다면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김밥, 샌드위치를 추천한다.

#### 4. 바닐라라떼 말고 아메리카노 주세요.

습관처럼 달콤한 음료를 마셨던 사람이라면, 아메리카노로 갈아타자. 실제로 유명 커피 가맹점인 스타벅스의 음료가 코카콜라보다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메리카노는 열량이 거의 없는 편인 데다가 일각에서는 "지방 연소를 돕는다" 는 주장도 제기됐다.

#### 5. 자두나 복숭아를 톱톱이 먹어준다.

자두나 복숭아는 뱃살을 덜 찌우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두는 섬유질이 풍부해 숙변을 제거하는데 탁월하다. 최근 말린 자두 또는 자두 음료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 6. 폭식하고 싶을 때는 '상상'을 하자

스트레스가 쌓여 폭식하고 싶을 때는 엄청나게 단 사탕이나 초콜릿 등 디저트를 먹는 상상을 하면 좋다. 매우 단 디저트를 먹는 상상을 하면 스스로 식욕을 줄이는 최면을 거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7. 짧고 강한 운동법 찾기

바쁘더라도 몸 근육에 긴장을 줄 방법을 익혀두자.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유산고 근력 운동을 연이어 하는 '버피 테스트'를 하면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다.

## [ 직원할인 제휴업체 ]



지난 호에 소개한 HAUS와 몽마르쵸에 이어 KBS America의 직원할인 제휴업체가 또 한군데 추가 되었다.

### 형제갈비 (Brothers BBQ)

주소: 3680 W 6th St. L.A., CA 90020

전화번호: 213-739-8800

할인율: 10% - 런치스페셜 메뉴나 2 +1 메뉴는 할인에서 제외